

치위생사 업무영역 보다 확대돼야

20세기의 치과계의 주된 패러다임이 구강질환 치료나 치아통증 제거가 주된 것이라면 21세기의 치과계의 패러다임은 치료 위주가 아닌 구강 건강 증진이 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그간의 진료실 치료 지원 인력으로 자리매김을 하였던 치위생사의 업무 영역도 변화가 되어야 한다. 1960년대 미국에서 고속엔진 도입과 four hand dentistry를 도입함으로써 치과 진료실의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향상이 되었듯이 21세기를 맞이하여 치과진료실에서도 새로운 구강진료의 모델을 개발해야 할 시점이다. 이러한 면에서 치위생사의 업무영역이 새로이 정의되어야 하고 개발되어야 한다. 치위생사의 역할이 확대 되어야 하는 첫 번째 부분은 진료실과 지역사회에서의 구강보건 교육요원으로서의 역할이다. 최근의 강조가 되고 있는 구강건강 증진의 주된 개념은 단지 구강병 치료와 예방의 차원을 넘어서 건강한 사람을 더욱 건강하게 하는데 있다.

이러한 구강건강 증진의 주된 내용은 구강보건교육이다. 특히 대표적인 만성질환인 구강병의 예방과 관리는 환자자신의 행동 변화와 협조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환자에 대한 교육은 미래의 치과진료실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 될 것이다. 특히 치과진료의 특성상 치료 후 환자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효과적인 치료가 안된다는 점에서 치료 후 환자에 대한 교육과 관리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또한 지역사회 차원의 구강건강증진사업을 위한 구강보건교육 사업에서도 치위생사가 주된 역할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구강보건교육은 단지 구강보건지식을 환자나 주민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환자의 행동과 가치관을 변화 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전문적인 교육과 실제적인 경험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치위생과 교육에서 이러한 분야에 대한 많은 교육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는 21세기 치과 의료의 궁극적인 목표는 구강병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서 국민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데 두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치과의사는 국민에게 행복을 나누워 주는 사람이고 치위생사는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행복도우미라고도 정의 할 수 있다. 따라서 남에게 행복을 나누워 주기 위해서는 치과의사와 치위생사 자신이 행복해야 하며 진료환경 또한 행복해야 한다. 자신과 직장이 행복하지 않는데 어떻게 남에게 행복을 나누워 줄 수 있겠는가? 따라서 성공적인 치료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진료실에 행복한 분위기가 넘쳐야 한다.

따라서 치과원장은 치위생사가 행복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마찬가지로 치위생사는 치과의사가 행복하게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환자는 행복한 치과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사료된다. 특히 21세기에도 치과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일반 국민이 치과에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을 변화 시켜야 한다. 즉 마취 바늘로 핸드피스 드릴 소리로 상징 되는 치과는 방문하기에는 괴롭고 무서운 장소로 대다수 국민들에게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치과의료의 발전하기 위해서는 치과에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치과의원을 환자들의 구강건강을 돌보아 주고 자문해 주는 편안하고 행복한 곳으로 인식시켜야 한다. 이러한 인식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력은 치과위생사라고

생각된다. 치과 위생사의 따뜻한 미소와 대화는 환자들에게 치과의원을 편안하고 행복한 곳이라고 인식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21세기의 치위생사의 중요한 역할은 구강보건 교육 담당자 역할과 함께 진료실에서의 구강 건강에 대한 카운슬러 역할이라고 사료된다. 이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치위생사 교육과정 중에 환자와의 대화 기술이나 환자 심리학 등에 대한 교육이 강화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요한 역할은 진료실에서의 구강병 예방을 담당하는 요원으로서의 역할과 지역사회에서 구강보건 사업의 실무를 담당하는 구강보건 사업 요원으로서의 역할이다. 구강보건법 제정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으로 구강보건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는 법적인 기반은 마련되었다.

이러한 사업을 치과의사가 담당하여 시행하면 가장 바람직하나 현재 현실적으로 치과의사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치위생사의 역할이 증대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결국 지역사회 현장에서 구강보건사업의 실무는 현재 치과위생사가 주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따라서 구강보건법 제정을 계기로 점차 확대되어야 하는 구강보건사업은 치위생사의 중요한 업무의 하나가 될 것이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21세기의 치위생사의 역할은 구강보건 교육자로서의 역할과 진료실에서 구강병 예방업무와 치료 후 환자를 체계적인 관리를 하는 구강건강관리자의 역할 그리고 지역사회에서의 구강보건 사업을 담당하는 구강보건사업 실무자 역할로 정리 될 수 있다.

그러나 치위생사의 역할이 이렇게 확대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구강병 예방과 구강보건교육자 역할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구강병 예방처치 항목이 의료보험에서 급여화가 되어야 한다. 현재 대다수의 위생사들의 업무가 진료 보조업무에 머무르고 확대되지 못하는 주요한 이유는 예방처치 항목의 의료급여화가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으로 예방처치항목이 급여화가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예방처치 방법들이

개발되어야 하고 특히 치위생사 교육과정 중에서 이에 대한 내실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구강보건 교육은 단지 지식만을 전달하는 과정이 아니라는 점에서 실제적인 다양한 구강보건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치위생사가 지역사회 구강 보건사업 담당하는 인력으로 개발되기 위해서는 교과과정에서 구강역학이나 지역사회구강보건학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교육이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치위생사의 업무영역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먼저 21세기 치과의료계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치위생사 교육과정의 개편과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함께 치과의사의 치위생사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20세기 중반에 치과계가 four hand dentistry를 도입함으로써 치과의료 생산성에 획기적인 변화를 이루었듯이 21세기에서도 치과계의 생산성 향상은 위생사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된다.

결론적으로 치과 진료실에서의 의료의 질 향상과 생산성 향상은 치위생사에 대한 과감한 업무 이양과 치위생사의 업무 수준 향상을 통해서 만이 가능하다. 현재와 같이 최고 수준의 고급 인력인 치과의사가 진료의 시작과 끝의 모든 것을 관장 하는 체계 하에서는 치과계의 생산성 향상은 기대 할 수가 없다. 생산성 향상은 창조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며 이러한 창조적인 생각은 삶의 여유가 생길 때 가능하며 치과의사의 삶의 여유는 직무의 과감한 이양을 통해서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권호근 교수
(연세대학교치과대학
예방치과학교실)